

포커스 그룹 면담을 이용한 청소년 흡연의 습관화 과정

윤순녕* · 이윤정** · 서은영*** · 김춘미**** · 고 영***** · 장미경***** · 현정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흡연은 유해성분이 신체에 미치는 피해가 성인에 비해 더 심각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 습득한 흡연 습관이 성인이 되어도 지속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지닌다(Park, 2007). 우리나라의 청소년 흡연은 그 동안의 다양한 보건교육과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발표한 2008년 전국 중, 고등학교 학생 흡연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학교 남학생의 5.7%, 중학교 여학생의 2.2%, 고등학교 남학생의 18.1%, 고등학교 여학생의 3.5%가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orean Association of Smoking and Health, 2008). 여학생보다 월등히 높은 남학생들의 흡연율은 첫 실태조사를 실시한 1998년과 비교했을 때 고등학생의 경우 감소한 반면, 중학생의 경우 1.8%에서 5.7%로 상승하였다. 중, 고등학교 흡연 학생들이 담배를 처음 시작한 나이는 1998년의 15세보다 무려 3년이나 빨라진 평균 12.5세로, 초등학교 후반이나 중학교 초기에 학생들이 흡연에 노출되어 습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7). 흡연 시작 연령이 5년마다 1세씩 점차 낮아지고 있어 흡연 예방과 금연을 위한 중재는 10대 초기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KASH, 2008; KCDCP, 2007).

흡연하는 청소년들의 흡연 동기와 관련요인에 관해서는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가 주로 시행되었다. 흡연을 하게 된 동기로는 "호기심", "친구들을 따라", "스트레스 해소", "맛이 좋다고 해서", "멋있게 보여서" 등으로 나타났다(Hwang, Chun, & Kim, 2004; Kam et al., 2000; KASH, 2008).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의 흡연 혹은 음주, 자녀 흡연 용인, 대화부족 등의 가정 내 요인(Kam et al., 2000; Kim et al., 2006; Lee & Lee, 2000), 주변환경, 주거지역 등의 환경적 요인(Kam et al., 2000; Park, 2005), 학년, 학업 성취도, 교사와의 관계 등의 학교관계요인(Kim et al., 2006; Lee & Lee, 2000)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여러 영향 요인들은 연구마다 연구자가 조사한 항목 중에서 유의한 것을 보고한 것이어서 청소년 흡연의 시작 동기와 관련 요인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까지의 흡연예방 프로그램이나 금연 프로그램에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겸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교수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교신저자 E-mail: esuh@snu.ac.kr),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겸임연구원

**** 여주대학 간호과 교수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 과정생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석사 과정생

투고일: 2008년 10월 31일 심사완료일: 2008년 12월 22일

대한 국내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일정한 기간의 교육을 제공하고 특정 변수의 변화를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한 실험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8주에서 12주가량의 주 1회 흡연예방 교육이 청소년의 흡연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유의하게 상승시킨 연구(Kim, 2003; Kim & Chung, 2003)와 태도는 변화시키지 못하고 흡연의 폐해에 대한 지식만 상승시킨다는 연구(Han, 2002) 등이 그것이다. 지식, 태도, 및 자아존중감 증가와 스트레스 감소를 목표로 제공된 4주 동안의 중학생을 위한 흡연 예방 프로그램에서는 모든 변수가 4주 후에 유의하게 변화하는 결과를 나타냈다(Park, Kang, & Ryu, 2001). 또한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뿐만 아니라 역할극, 인터넷, 비디오 시청 등의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여 일부 그 효과를 보고하였다(Han, 2002; Hwang et al., 2004; Kim & Kwon, 2000).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인 흡연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는 2-3개월 후 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Hwang et al., 2004; Park, Lee, & Park, 2004). 대부분의 실험 연구에서 장기적인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존 흡연 예방 프로그램의 장기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미국에서도 개별 학교에서 수행한 흡연 예방이나 금연 프로그램은 장기적인 효과가 없는 단발적 시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면서, 학생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학교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개인적인 동기부여 면담(motivational interviews), 부모의 도움을 청하는 편지, 학교 전체의 캠페인, 학생들 스스로 모임을 통한 행위변화 등 다각적인 형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Backinger, Fagan, Matthews, & Grana, 2003; Hamilton, O'Connell, & Cross, 2004).

보다 심층적인 청소년 흡연과 관련한 요인과 주변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소수의 질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중국 홍콩에서 청소년 남학생 32명에게 포커스 그룹 면담을 실시하여 흡연하는 원인, 금연시도 경험, 금연에 대한 태도 등을 탐구하였다(Abdullah & Ho, 2006). 금연할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을 7개의 주제로 도출하였는데, "지루함", "친구들의 영향", "흡연 충동", "학업의 스트레스", "손으로 무언가 하고 싶은 욕구",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집중할 수 없음", "친구들이 항상 권해줌" 등이었다(Abdullah & Ho, 2006). 참여자들은 부모나 선생님, 여자친구 등이 주는 금연에 대한 조언이나 압력은 소용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소년들의 흡연이

습관화되면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금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 개발을 위해서는 청소년 흡연 현상에 대한 보다 심층적 맥락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뉴욕에 거주하는 금연을 시도한 청소년 54명을 대상으로 금연 경험에 대해 무엇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는가를 포커스 그룹 면담을 이용하여 탐구한 질적 연구가 있다(Falkin, Fryer, & Mahadeo, 2007). 청소년들은 "흡연 욕구에 대처하는 것", "자주 느끼는 흡연 충동을 억제하는 것", "가족과 친구들의 금연에 대한 지지 부족", 및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등을 금연하는데 가장 어려운 장애물로 진술하였으며, 금연은 단순히 담배만 안 피우는 것이 아니라 금연 후 친구들의 따돌림도 감수해야 하고 그 동안 즐기던 친구들과의 유희도 포기해야 하므로 더 어렵다고 하였다. 금연의 경험은 단순히 알려진 장애물보다 훨씬 더한 스트레스 상황을 직면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Falkin et al., 2007). 같은 맥락에서 흡연 예방과 금연에 대한 중재는 현재까지 시도된 단순한 교육이나 홍보의 수준보다 훨씬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개인에게 적합한 심층적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는 질적 연구도 보고되었다(Staten & Ridner, 2006).

국내의 청소년 흡연관련 질적 연구는 세 편이 보고되었다. 금연 시도의 경험이 있는 중, 고등학교 학생 15명을 세 개의 포커스 그룹으로 나누어 왜 금연을 하기로 하였는지 그 동기를 탐색한 질적 연구에서는 여섯 가지의 범주가 도출되었다(Han, Ha, Park, & Lee, 2005). "신체의 악영향 인지", "중요한 타인의 영향", "불편한 마음", "학업 성취도 저하", "대인관계의 협소화", "학생으로서 생활의 우선순위 결정" 등의 이유로 청소년들은 금연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5명의 참여자 중 세 명의 여학생만이 금연에 성공하였고 그 외의 학생들은 모두 상습적 혹은 간헐적으로 흡연을 하고 있어 개인이 시도한 금연의 성공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Han et al., 2005). 중, 고등학교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동기와 경험을 연구한 두 질적 연구에서는 "주변의 부추김", "막연한 호기심", "남성다운 멋스러움", "습관화", "스트레스 해소수단" 등의 이유로 흡연을 시작하며 흡연을 지속하는 요인으로는 환경적인 요인과 관계 형성에서의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ung, 2001; Kim, Cho, & Lee, 2001).

이상의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들이 어떻게

게 흡연을 시작하게 되고 왜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는가는 개개인이 가진 인구학적 요인, 개인적 특성, 가족 특성, 환경적 요인 등의 변수만큼이나 다양한 관련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생성해내는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흡연 예방 및 금연에 대한 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 고등학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증가하고 초기 흡연 연령이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청소년 흡연이 어떤 상황에서 시작되며 어떤 요인들의 맥락적 영향을 받으며 습관화 되어가는 가를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흡연의 시도로부터 습관화에 이르는 과정을 귀납적으로 접근하여 그 상황적 맥락을 서술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초기인 남녀 중학생들이 흡연을 시작하여 습관화하게 되는 과정을 질적 연구 방법론의 하나인 근거이론방법론을 이용하여 탐구하고 서술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남녀 중학생들이 어떤 상황에서 흡연을 시작하게 되는가?
- 2) 남녀 중학생들이 흡연을 습관화하는 과정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및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근거이론방법론에 따라 남녀 중학생의 흡연 시도 및 습관화 과정을 탐구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 면담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 대상자 및 연구자 준비

다양한 관점에서 청소년 흡연 습관화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로 상이한 세 집단에서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도록 모집하였다. 첫 번째 대상은 흡연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남녀 중학생, 둘째는 흡연을 시도해 보았거나 흡연하는 환경에 노출된 경험은 있으나 습관적으로 흡연을 하지 않는 남녀 중학생, 그리고 현직에 있는 중학교 교사 등이다. 교사의 경우 중학교에서 흡연 학생 지도 혹은 보건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야 하며 경력, 담당과목, 성별 등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대상자 선정은 편의 표출법을 사용하였다. 세 종류의 대상자 모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지장이 없고 특별한 급성 혹은 만성 질환 및 정신과적 질환이 없는 자로 제한하였다. 자료 수집 전 해당 학교장의 연구 협조를 서면으로 승인 받았으며 연구자들이 속한 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연구 윤리 심사를 거쳤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교사 12명, 비흡연 학생 13명, 상습흡연학생 13명 등 모두 38명이었다. 교사는 남자 8명, 여자 4명이었고 남학생 20명, 여학생 6명이었다. 학생들은 1학년이 17명, 2학년이 9명이었다. 이상의 대상자들이 모두 여섯 포커스 그룹 면담에 참여하였는데 각 그룹의 참여자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 중 두 명은 질적 연구 방법론을 이용하여 박사논문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나머지 연구자들도 질적 연구 방법론을 이용하여 연구한 경험이 있다. 연구자들은 또한 근거이론방법론의 철학적 배경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연구 수행 전 공유하였으며 정기적인 연구 모임을 통해 연구방법론에 충실하여 연구의 엄격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연구자의 선입견 차단(bracketing), 중립성 유지(neutrality), 현상에의 몰입(immersion) 등에 대해서도 지식 습득과 훈련을 공유하였다.

<Table 1> Participants' Demographics

Focus group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umber of participants (total:38)	Gender		Grade
			Male	Female	
I	Teachers	6	4	2	-
II	Teachers	6	4	2	-
III	Non-smokers	7	5	2	1st
IV	Non-smokers	6	6	0	1st
V	Habitual smokers	6	4	2	1st: 4/ 2nd: 2
VI	Habitual smokers	7	5	2	2nd

3.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질적 자료는 포커스 그룹 면담법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연구팀이 접근 가능한 서울, 경기 지역 중학교에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관심 있는 학교장 및 교사들의 연구 참여 의사를 타진하였다. 연구에 관심을 보인 중학교에 연구자 1인이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학교장의 협조 동의서를 얻었다. 연구 참여를 원하는 교사를 각 중학교에서 1-2인씩 선정하여 서울 시내 한 회의실에서 면담을 수행하였다. 회의실은 포커스 그룹 등의 면담 등의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으로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 관찰 및 속기사의 작업이 가능한 곳이었다. 질적 자료의 기본인 면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성인인 교사들의 면담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여 청소년 흡연 현상 전반에 대해 파악하였으며, 두 번의 교사 면담 후 교사들에게 비흡연 학생들과 상습 흡연 학생들을 추천하도록 하여 학생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교사 및 흡연학생, 비흡연 학생 등을 각각 두 개의 포커스 그룹으로 모집한 이유는 근거이론 방법에 따라 대상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Glaser & Strauss, 1967).

포커스 그룹 자료 수집은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한 집단 면담 후 내용을 대략적으로 분석하여 추후 면담 질문 내용 및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흡연 학생들의 면담은 대체로 단편적이고 산만하였으나 비흡연 학생들은 자신의 의사를 비교적 분명하게 표현하였고 집단의 역동도 더 활기찼었다. 면담은 저자들 중 3인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면담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위해 토론의 방향을 제시하고 스스로 대화를 주고받도록 유도하였다. 면담 후 세 면담 진행자들이 그날의 면담을 요약하는 시간을 가져 참여하지 않은 면담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였다. 여섯 집단 면담 후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아 포화상태(saturation point)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여 자료 수집을 종료하였다. 포커스 그룹 면담의 질문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축으로 하여 교사의 관점과 비흡연 학생의 관점에서 본 상습 흡연 학생의 흡연 시작 및 습관화 과정을 파악하고 상습 흡연 학생에게는 자신들의 상황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세부 질문이 추가되었다.

- 1) 학생이 흡연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 2) 특정 학생이 왜 흡연을 지속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3) 상습 흡연 학생이 속한 가정, 학교, 주변 환경, 심리적 요인 등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4. 자료 분석 방법

포커스 그룹 면담은 모두 녹음한 뒤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근거이론 방법론에 따라 개방형 코딩(open coding), 축 코딩(axial coding), 이론적 선택(theoretical sampling)의 세 단계를 거쳤다 (Glaser & Strauss, 1967). 개방형 코딩은 면담 내용에서 의미 있는 단어, 구절, 단락 등을 분리해내는 과정으로 NVivo 7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단위를 추출하고 분류하였다. 축 코딩은 각각의 분석단위의 연관성을 반복적인 순환과정을 통해 정련해 나가는 과정으로 계속적 비교분석법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선택 과정에서의 선택적 코딩(selective sampling)은 Glaser(1978)가 제시하고 Swanson(1986)이 구체화한 원인(causes), 부가적 요인(contingencies), 상황(conditions), 맥락(contexts), 결과(consequences), 공유 요인(covariations) 등의 여섯 가지 이론적 코드(theoretical code)기준을 사용하였다.

5. 대상자 보호

참여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 수행 전 연구윤리심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 참여자들에게 연구 참여 전 연구의 목적, 절차, 자료 수집 방법, 결과물의 성격과 사용용도, 익명성 보장, 자료 보관 방법, 연구 참여 도중 거부 가능 등에 관해 설명하고 서면 동의서에 서명하게 한 후 동의서 사본 1부를 제공하였다. 1차 녹취록이 작성된 후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인명, 지명 등의 자료는 가명이나 기호로 대체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일단 익명성이 보장된 자료만을 연구팀이 공유하고 분석에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와 음성파일은 연구자 1인이 보관하다가 분석이 종료함과 동시에 폐기하였다.

6.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를 위해 질적 연구의 엄격성(rigor) 기준(Guba & Lincoln, 1989)에 의거하

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타당도에 해당하는 사실적 가치(truth-value) 확보를 위해 면담 후 연구자가 면담 내용을 요약하여 참여자에게 면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음성파일과 녹취록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한 파일 당 세 군데 이상을 비교하여 녹취 과정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적용가능성(applicability)의 확보를 위해 보건교사 1인과 지역사회 간호학 전공 교수 1인의 감수를 받아 면담에서 나온 내용이 실제의 중학생 흡연 현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일관성(consistency) 확보를 위해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의 행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일지를 작성하였고, 정기적으로 연구팀이 자료 분석 모임을 가져 자료 분석의 중립성(neutrality)을 유지하였다.

III. 연구 결과

중학교 교사, 비흡연 학생, 흡연 학생 등 총 36 명을 여섯 개의 포커스 그룹으로 면담하여 중학생 흡연의 습관화 과정을 연구한 결과, 본 연구의 상황 특이적 근거 이론의 중심 주제는 “호기심으로 시작해 빨려 들어가면 헤어 나올 수 없는 수렁”(Stepping into a quagmire by a merest chance)으로 나타났다(Figure 1). 습관적으로 흡연하는 학생들이 처한 상황을 “수렁”으로 표현한 이유는 흡연 학생을 둘러싼 다양한 상황적, 환경적, 관계적 요인들이 이미 계속 흡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므로 아직 정신적으로 미숙한 청소년 개인이 금연 의지를 가지더라도 그러한 상황적 맥락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분석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상습 흡연자 모두가 금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담배를 한 번도 피우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면 “후회하니까 절대로 시도조차 하지 말라”고 권유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끊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습관적 흡연학생들은 담배를 편다는 것은 매일 세수하고 밥 먹는 것과 같이 일상생활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한 학생은 “폐암 초기라고 진단 받기 전까지는 못 끊을 것 같다”라고 표현할 만큼 흡연의 습관화 정도는 심화되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근거이론을 형상화 한 그림(Figure 1)에서 볼 수 있듯이 흡연의 시도는 상습적 흡연 학생이거나 비흡연 학생이거나 동일하게 우연한 기회에 담배를 손에 넣게 되어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우연한 기회를 가지려면 가족 내 흡연자가 있어 담배를 쉽게 손에 넣거나, 가족 내 불화, 과중한

학업 스트레스, 청소년으로서의 반항심 등이 있어 일탈 행동을 시도하는 등의 부가적 요인(contingencies)이 선행되어야 함도 밝혀졌다. 이렇게 시작된 첫 흡연 경험은 담배 구입이 가능한 접근성(accessibility), 또래 집단이 함께 행동함(going around in group), 그리고 훈육 부재(lack of discipline) 등의 상황적 요인이 갖추어졌을 때 습관화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 가지의 상황적 요인을 가능하게 하는 맥락적 특성(contexts)은 담배를 구입하는 요령을 배워 담배를 손쉽게 손에 넣는 것, 함께 어울리는 또래들과 비행 행동을 하고 흡연을 친구에게 권유하는 것, 그리고 부모의 방관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상기의 상황적, 맥락적 특성이 모두 갖추어져 청소년이 흡연을 습관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상습적으로 흡연을 하는 학생들은 공유 요인(covariances)으로 주변으로부터의 낙인(stigmatizing), 집단 비행 행동에 연루(mob violence), 학업 성적 부진(making a poor academic record)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laser(1978)와 Swanson(1986)이 제시한 여섯 가지 이론적 코드(theoretical code)기준을 사용하여 각각의 세부 범주를 자세히 서술하면 아래와 같다.

1. 원인적 요인(causes)

연구 참여 학생들이 처음 흡연을 하게 되는 것은 흡연을 하려는 계획이나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담배를 접하게 되고 호기심에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담배를 피워보거나 친구들이 모여 담배 피는 환경에 노출된 경험을 서술한 자료로부터 “호기심에 처음 담배를 피워봄”, “우연한 기회에 담배를 손에 넣음”, “친구들이 권해줌”이 주된 원인적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학생들의 특징은 어떤 이유에서건 흡연하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없었고 쉽게 담배를 손에 넣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었으며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에게 담배를 권유 받아 첫 흡연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담배를 거부감 없이 피울 수 있었던 원인을 교사와 학생들 모두 “호기심” 때문이라고 진술한다.

“(처음 담배를 왜 피웠어요?) 호기심예요. (해보니까 어때요?) 썼어요.” (G3-5-131)

“저는 1학년 때 피웠는데 1학년 때 애랑 같은 반이었어요. 애들이랑 호기심에 피웠어요. 친구들이 그냥 퍼서 호기심에 퍼 본 거예요.” (G6-1-5)

학생들은 이와 같이 흡연에 대한 거부감 보다는 호기심이 많은 상태였는데 우연한 기회에 담배를 손에 넣게 되거나 친구들의 권유를 받게 되면 별다른 저항 없이 첫 흡연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6학년 초인가. 친구들이 다 모여서 재미있을 것 같아서 했어요.” (G5-8-182)

“친구들이 옆에서 피우면 유혹이 된다니까요. 나도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두 가지 생각이 막 들어요.” (G5-10-210)

“전 초등학교 때 6학년 여름방학 때 친구들과 같이 놀러 갔는데 계곡에서 담뱃갑을 주었어요. 열어 보니까 담배 두 개치가 있어요. 주웠던 애가ライター도 주어서 불을 부쳐서 피워볼 사람 손들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서 그 애가 피워본다고 입에 대고 쭉 빨았는데 한번에 다 한 개피를 빨았어요. 괜찮냐 했더니 눈이 헤롱헤롱했어요. 그때 본 게 처음이구요. 그 애가 다음에 담배에 중독 되었나 봐요.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담배 구해와서 자꾸 몰래 피워요.” (G3-6-151)

우연한 기회에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된다면 모든 학생이 담배를 피우게 되는 것은 아니다. Swanson(1986)은 원인요인이 촉발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상태를 “부가적 요인(contingencies)”이라 명명하였다.

2. 부가적 요인(contingencies)

학생들이 처음 담배를 접하였을 때 거부감 없이 시도해 보는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 공통적으로 선행하는 부가적 요인으로 “행복하지 않은 가정”, “가족 구성원의 흡연”, “과중한 학업 스트레스”, “청소년으로서의 반항심” 등 네 개의 하부 범주가 도출되었다. “행복하지 않은 가정”은 부모가 과도하게 훈육을 하거나, 부모의 이혼으로 편부 혹은 편모와 생활하거나, 가정 내 의사소통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으로 이러한 가정에 속한 학생들이 흡연을 주저함 없이 시도했다고 진술하였다.

“(흡연하는 학생들의) 가정환경을 보니까 비슷해요. 가정환경하고 흡연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커요. 같이 모이는 애들을 보니까 부모님 한 분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할머니들이 키우거나, 그런 애들끼리 어떻게 잘 모이게 되더라고요.” (교사 G1-8-184)

“개네들이 (흡연하는 애들이) 사실 삶에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집에 가도 부모가 애들을 돌보지 않는

다든지. 아니면 편부 편모 밑에서 자란다든지 그렇죠.” (교사 G2-30-731)

“엄마, 아빠와 말이 잘 안 통해요. 가족이 별로 얘기 안 해요. 아빠는 정말 싫어요. (왜?) 몰라요. 짜증이나요. 정말 싫어요.” (흡연학생 G5-2-42)

“(엄마, 아빠랑 대화를 하니?) 중학교 와서는 별로 안 해요. 고민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있어도 엄마, 아빠에겐 얘기 안 해요.” (흡연학생 G6-8-183)

두 번째의 부가적 요인으로는 “가족구성원의 흡연”이 도출되었다. 상습 흡연자인 참여 학생들 대부분이 가족 중에 흡연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처음 담배를 피워본 것도 가족이 가진 담배를 몰래 가져다가 피워 보았다고 하였다.

“저도 처음에 그냥 집에 있는 아버지 담배를 피워봤어요.” (G5-6-121)

“(집에서 부모님들이 피우시니?) 네. 어릴 때부터 담배를 보고 컸고요. 옆에서 피고요. (누가?) 아빠랑 엄마랑 언니랑...” (G6-7-165)

“이제 그런 것(담배)을 어려서부터 자꾸 접하다 보니까 떠올리기 쉬운 거죠.” (교사 G1-23-570)

“학생들이 부모의 담배를 몇 가지씩 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담배 피는 애들 적발하면 언제부터 피웠느냐, 동기가 뭐였느냐, 어디서 구했느냐 이런 걸 자세히 물어보면, 대체로 보면 아버지 담배예요.” (교사 G2-14-337)

그 밖의 부가적 요인으로는 학교에서의 과중한 학업 스트레스와 청소년으로서의 반항심이 있는 경우 담배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진술에서 중학생들이 일상에서 겪는 학업 스트레스와 부모님에 대한 반항심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담배를 피우게 됨을 알 수 있다.

“중학교 되니까 일단 학원 시간이 많이 공부하니까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여요.” (G3-8-215)

“학원 다니면서 힘들잖아요, 엄마도 맨날 공부 때문에 말 많이 하시고... 스트레스 해소 면에서 주위에서 누가 담배 피우라고 권유하면 점점 빠져들어요.” (G4-5-116)

“부모님한테 혼나고요, 그냥 그런 기분일 때 담배를 피요. 피우는 것 자체가 반항은 아닌 것 같은데.. 우하는 생각이 들고 기분 나쁠 때 피요.” (G6-6-151)

이런 부가적 요인을 가지지 않은 학생의 경우, 즉 어떤 이유에서건 흡연에 대한 강항 거부감을 일찍부터 습득한 학생은 흡연 환경에 노출되었지만 담배 피우는 것

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한 참여 학생은 친구들이 담배를 권해도 그 자리를 피하거나 아래와 같은 전략을 사용한다고 진술하였다.

“대화로 일단 피지 말라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면서 네 담배 한 모금에 네 인생을 망칠 수 있다고 압박을 넣고... 주위사람에 도움을 청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해서라도 친구들이 담배 피우는 것을 막고 싶어요.” (G3-8-229)

3. 상황(conditions) 및 맥락적(contexts)요인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우연한 기회에 흡연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부가적 요인(contingencies)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은 쉽게 흡연을 시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시작된 흡연이 습관화 과정에 진입하려면 접근성, 또래 집단화, 훈육 부재 등의 세 가지의 상황적 요인(conditions)을 동반해야 한다. 여기서 상황(conditions)이란 원인적 요인이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상태 혹은 개념적 구성요소를 일컫는다(Swanson, 1986). 이러한 상황(conditions)은 구체적 특성이나 정황을 담아내는 맥락적 요인(context)을 동반한다. 세 가지의 상황적 요인(conditions)에 덧붙여 그 맥락적 요인(contexts)을 순차적으로 서술하면 아래와 같다.

1) 접근성 (accessibility): 담배를 구입하는 요령을 배워 손쉽게 담배를 손에 넣음

흡연을 습관화하기 위한 첫 번째 상황적 요인은 담배를 손에 넣을 수 있는 접근성이다. 교사 및 학생 참여자 모두 담배 판매를 규제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담배를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적으로 흡연 학생들은 담배를 살 수 있는 다양한 요령을 배워서 실제적으로 구입하거나 집안 식구들의 담배를 몰래 가져다 피는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에 들어가서 삭아 보이는 친구, 나이 들어 보이는 친구가 가서 담배를 사와요. 그걸담배를 훔는다고 해요...” (G3-3-74)

“주인이 할머니거나 어두침침한 작은 구멍가게에 가서 사요.” (G3-3-80)

“(가게에) 할머니가 주인이면 (학생이) 무서워서 담배 준대요.” (G4-18-431)

“일단 민증(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다 돼요. 얼굴이 약간 틀려도, 많이 틀려도 민증만 있으면 돼요. (민증은 어

디서 구해?) 아는 선배 민증 빌려서 해요.” (G5-6-116)

“아빠가 자주 가는 담배 가게에 아빠가 사다 달라고 한다고 하고 사요.” (G5-8-174)

이렇게 학교 주변에서 담배를 파는 가게들을 일일이 철저하게 신고하여 규제하는 것도 실제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교사들의 의견이었다.

“학생들에게 판 것이 확실할 때 그 가게에 누차 경고했는데, 계속 팔아요. 그 사람들은 또 자기의 생계가 걸린 것이니까 규제에 한계가 있죠.” (교사 G1-9-222)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가게를 신고하게 되면 벌금이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불쌍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신고도 못하고 각서를 받아 오곤 합니다.” (교사 G2-3-66)

2) 집단으로 함께 행동함 (going around in

group): 함께 어울리는 또래들과 흡연을 서로에게 권유함

접근성을 확보한 학생들이 쉽게 담배를 손에 넣은 후에는 또래 학생들과 어울려 함께 흡연을 하는 집단적 행동양상을 보인다는 것이 두 번째 상황적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또래 집단의 형성은 서로에게 흡연을 지속하도록 강화하는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개별적으로 금연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굴레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흡연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강압적으로 흡연을 권유하거나 또는 그러한 선배들의 강압적인 강요에 의해 흡연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새 전 (선배들한테) 안 피운다고 해요. ‘너 피는 거 다 알거든’, 하면 ‘진짜 안피우는데요’, 라고 하면, 선배가 ‘예의니까 (담배를) 받아 놓기만 하라고’ 해요. 선배가 준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 버리거나 부러뜨리면 (선배들이) 돌아요.” (G5-16-346)

“담배를 피우면서 동료의식을 느끼고, 그렇게 계속 피우게 되는 거예요. 먼저 가장 친한 친구가 같이 담배를 핀다. 같이 피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한대 필 수 있으면 너랑 나랑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다, 시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사 G1-10-240)

“담배를 피우면 또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자기도 끊으려고 했지만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있을 때 주변 아이들이 피우니까.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 못 끊고 심지어는 담배 빵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담배 피우는 아이들끼리 손등에다가 지져서 (같은 집단임을)표현하는 거예요.” (교사 G2-20-497)

3) 훈육의 부재 (lack of discipline): 부모의 방관
 마지막 상황적 요인은 흡연하는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훈육의 부재”이며 이에 따른 맥락적 요인은 “부모의 방관” 혹은 “자녀 흡연의 용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훈육은 가정과 학교에서의 지도인데, 교사들의 면담을 통해 부모의 협조가 없이는 학교에서의 흡연 학생 지도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사들은 요즘 부모들이 자녀가 흡연을 하여도 용인하거나 미처 훈육을 할 수 없을 만큼 매일의 생활이 힘겨운 경우가 많다고 진술하였다. 상습적으로 흡연을 하는 학생들을 면담하면서 학생의 부모들이 대체로 비전문직 직업에 종사하며 자녀들과는 거의 대화가 없이 생계를 꾸려 가는데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역할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왜냐면 편부 편모인 경우가 많아서요. 그런 가정을 가진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걸 많이 봤어요.” (G2-20-485)

“어차피 학생부에서 (흡연학생에게) 징계를 줘서 금연 학교에 보내고, 교내봉사 하고, 또 사회봉사 하고 여러 가지 해봐도 효과가 없어요. 도리어 자기네들끼리 몰려 다니면서, 방과 후 길에서 피울 수도 있고.” (교사 G2-25-614)

“우리가 그 학생들이 이런 걸 (학생 지도) 했다고 그래서 (담배를) 끊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뭘 막 시키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G2-19-456)

이상과 같이 우연히 담배를 접하게 된 학생들이 담배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환경에서 자라고 흡연을 스트레스나 반항심의 해소를 위한 탈출구로 삼을 경우 흡연을 시작하게 되고, 담배를 손에 넣는 방법을 또래 집단 친구들과 함께 행동하며 배우고, 서로의 흡연 행동을 강화하면서 점차 습관성 흡연의 길로 접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4. 결과(consequences): 흡연의 습관화

앞서 시술한 청소년 흡연과 관련한 원인, 부가적 요인, 상황 및 맥락적 요인들이 모두 갖추어질 경우 학생은 습관적으로 흡연을 하게 되는 상태에 이른다. 그럼 1에서 표현한 것과 같이 우연한 기회에 시작한 흡연은 상황적, 맥락적 요인들이 틈나뒀어와 같이 상호 작용하여

청소년들을 헤어 나올 수 없는 수렁 속으로 잠기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흡연이 습관화 되면 아무런 인지적 의도 없이 일상생활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를 왜 피우는 것 같니?)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 하는 것 하고 똑같아요. 꼭 해야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피우면 어지러운데 그 느낌이 좋아요.” (G6-3-78)

“(담배가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무서워요?) 그래서 할 때마다 내가 이걸 왜 하나 궁금한데 안 할 수 없어요. 내가 이걸 왜 하지? 혼자 그래요.” (G6-4-88)

“기분이 안 좋을 때 피우면 괜찮아져요. 밥 먹고 나서도 피요. 밥 먹고 안 피우면 뭔가 다 안 먹은 느낌이에요.” (G6-9-212)

“(담배를 안 사거나 안 가지고 있으면?) 꿈초 보면 미치겠어요/ 애들에게 빌려야지요./ 아무도 안 피우면 괜찮은데 누구 한 명 피우면 피우고 싶어요.” (G6-10-235)

이처럼 흡연하는 것이 일상생활화 되면 학생들은 점차 대범하게 담배를 피우게 되고 담배의 맛을 알게 되어 중독 상태가 되기도 한다.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여러 가지 금단 증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참여자 중 상습 흡연 학생들은 자신의 의지로는 담배를 끊을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교사들은 중학생들의 의지가 아직 연약하여 개인적인 의지만으로는 금연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맛이 다 틀려요. 멘솔 맛처럼 박하 있고 우유처럼 느끼한 것도 있고 미국에서 수입해 온 담배가 있는데 그건 멜론 맛도 나고, 아무튼 담배 종류가 되게 많아요. 선배가 구해줘서 다 해 봤어요... 이미 담배 맛을 다 아니까 습관화되어 끊을 수 없어요.” (G5-12-260)

“(다른 친구한테 담배 피우라고 하고 싶어?) 절대 피우지 말라고 할 거예요. (왜?) 후회할지 모르니까요. (본인은 후회 해?) 후회 하고 있어요. (왜? 어떤 면에서?) 보기 안 좋아요. 돈도 아깝고, 키도 안 크고... (그런데 지금은 끊을 수 없다는 거야?) 네. 100번은 시도 해 본 것 같아요... 주변에서 강력하게 끊으라고 말해도 그래도 소용없어요.” (G6-9-216)

“애들이 벌써 중독성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어른이면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극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아직 어려서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길거리 꿈초를 주워서라도 피는 거죠.” (교사 G1-12-278)

5. 공유 요인 (covariance)

마지막으로 이렇게 흡연이 습관화된 상태에서 함께 나타나는 현상, 즉 공유 요인 (covariance)으로는 “주변으로부터의 낙인”, “집단 비행 행동에 연루”, 그리고 “학업 성적 부진” 등이 범주화 되었다. 공유 요인은 한 변수가 변화할 때 함께 영향을 받는 변수를 말하는 것 (Swanson, 1986)으로 본 연구에서는 결과적 상태인 흡연의 습관화가 초래하게 되는 폐해를 범주화 하였다.

1) 주변으로부터의 낙인(stigmatizing)

일단 흡연에 노출되어 습관적으로 흡연을 하게 되면 그 학생은 주변으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학생으로 전락하게 되어 그 스트레스가 계속 흡연을 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변의 낙인은 부모, 교사, 친구들이 흡연 학생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학교의 정체가) 이 아이한테 아무 변화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다른 아이들한테 홍보만 하는 거지... 그냥 아, 내가 문제가 됐구나. 이런 생각만 더 들게 만드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교사 G2-8-176)

“*어떤 아이가 단순한 호기심에 담배를 피웠어요.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적발이 되면 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그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 개는 오로지 담배 하나 살짝 피워 봤을 뿐인데, 생활지도부 왔다 갔다 하면서 부모님도 ‘우리 애가...’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자식을 보는 부모의 눈도 달라지면서, 또 선생님들이 나를 이렇게 보겠지. 아이 스스로 자괴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되죠. 여러 가지로 문제예요.*” (G2-8-205)

2) 집단 비행 행동에 연루(mob violence).

습관적으로 흡연을 하는 학생들은 비슷한 또래들과 집단을 형성하여 흡연 외에도 다양한 비행 행동에 연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참여자들은 흡연학생들이 흡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 폭력, 각종 약물 남용에도 쉽게 노출된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학교와 가정에서 문제가야 낙인이 찍혀 이들의 비행행동은 더욱 부정적인 행로를 밟아가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비행으로 빠지는 첫 출발이 담배를 피우게 되는 것이거든요...선생님들 말씀하시는 폭력 문제, 이런 것들이 흡연과 다 연관된 거예요.*” (교사G1-10-239)

“*흡연, 음주, 일탈행동이 맞물려 간다는 거예요.. 흡연하고 음주하고 폭행이 트라이앵글이 되기 때문에 뿔래야 뿔 수 없어요.*” (교사 G2-14-328)

3) 학업 성적의 부진(making a poor academic record)

마지막으로 상습 흡연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유요인은 학업 성취도 부분에서의 부진함이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포커스 그룹은 상습 흡연자를 두 곳의 중학교에서 각각 추천 받아 면담하였는데, 학생들이 집중하기 어려워하며 자신의 의사표현도 분명하지 않았다. 흡연이 습관화되면 주변으로부터 문제아라는 낙인과 함께 비행행동에 점차 연루되고 학교에서의 성적은 하향권에 머물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흡연하는 아이들은) 성적을 올리려는 게 아니라, 공부가 싫어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교사 G1-25-610)

“*공부를 안 하지만. 그래서 어떤 성적을 올려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고, 공부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혼나고, 저 사람한테 혼나니까, 그게 자꾸 반복이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교사 G1-25-613)

“*전 정말 공부 안 해요.*” (G5-2-38)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도 가야 하는데 못 갈 것 같아요.*” (G6-13-318)

IV. 논 의

중학생들의 흡연 시도와 습관화 과정을 근거이론 방법론을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 본 연구의 상황 특이적 근거 이론의 핵심 범주는 “호기심으로 시작해 빨려 들어가면 헤어 나올 수 없는 수렁”(Stepping into a quagmire by a merest chance)이었다(Figure 1). 이 핵심 범주는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된 흡연이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적, 맥락적 요인들의 영향으로 어떻게 습관화 되어 가는 가를 참여자들의 생생한 관점을 통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학문적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흡연을 시작하는 순간에 작용하는 호기심과 같은 원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그 밖의 부가적, 상황적, 맥락적 요인과 공유 요인까지 분석하여 흡연의 시도부터 습관화에 이르는 과정을 기술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청소년 흡연관련 요인으로 알려진 부모의 흡연, 유해 환경에의 노출, 담배 구입이 가능한 접근성, 호기심, 부모에 대한 불만족, 학교 생활이 불만족, 집에서 흡연을 허용하는 것, 스트레스 등의 요인들이 본 연구의 근거이론 안에서 모두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Kam et al., 2000; Kim et al., 2006; Lee & Lee, 2000). 설문 조사를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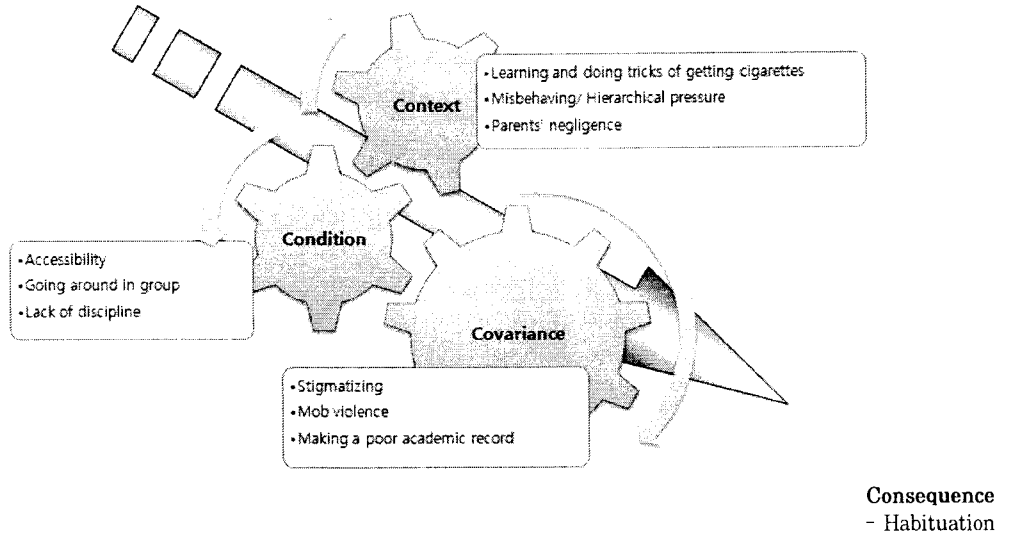
Overriding theme: Stepping into a quagmire by a merest chance

Causes

- Curiosity to smoking
- One trial by a merest chance
- By peer pressure

Contingencies

- Discord within the family
- Family member's smoking
- Schoolwork stress
- A rebellious spirit



〈Figure 1〉 The Process of Habituating to Smoking among Teenagers

한 기존의 조사 연구들이 흡연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과 관련 요인들을 모두 평면적으로 나열한 것이라면, 본 연구의 근거 이론은 그러한 요인들의 어떻게 상호 작용하여 중학생의 흡연이 습관화 되는가를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질적 연구도 청소년들의 흡연 경험(Chung, 2001)이나 금연 동기(Han et al., 2005)등의 단편적인 개념을 탐구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흡연의 시작부터 습관화에 이르는 과정과 그러한 습관화가 초래하는 결과적 산물까지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청소년 흡연 현상을 심층적이고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해 상습 흡연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관계적 요인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고착화 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려서부터 흡연하는 가족을 보고 담배에 익숙해지고, 특별히 담배를 금기시 하는 가정에서의 훈육을 받지 못하고 자란 학생들은 우연한 기회에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기회가 제공되면 아무런 인지적 저항도 없이 흡연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덧붙여 그러한 학생들은 가정적으로 아픔을 경험한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금연

에 대한 훈육은 더욱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학교 선생님께나 친구들에게 문제아라는 낙인을 받고 더불어 또래 집단에서 흡연, 음주, 폭력 등에 여지없이 노출되게 되면 아직 인지기능이 미숙한 한 학생은 개인이 극복하기에는 벅찬 악순환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에서 기존의 단기적인 흡연예방 혹은 금연 교육이 지속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Hwang et al., 2004; Park et al., 2004).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점은 청소년 흡연 시도와 습관화는 기존의 연구에서 알려진 것만큼 청소년의 논리적 인지기능이나 개인의 의지가 많이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참여 학생들은 자신의 친구나 주위 환경, 학교의 분위기, 교사의 훈육, 부모의 가치관, 과거의 훈육 방침 등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었고, 이런 이유에서 성인들에게서 개발된 행위 변화 이론이 청소년 흡연 현상 설명에 제한점을 가졌던 것이다(Lee & Lee, 2000). 흡연이 습관이 된 학생들은 대부분 왜 흡연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다고 말했고, 자기 의지로는 끊을 수 없으나 담배는 끊고 싶기 때문에 몇몇 학생은 "이 세상의 담배가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다"거나 "지

방으로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경찰서에 가는 것, 혹은 폐암 초기라고 진단받는 것과 같이 "크게 느끼는 일"이 있으면 담배를 끊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여 금연을 하는 것이 자신의 의지에서가 아니라 외부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청소년 흡연 습관화에 대한 근거 이론을 바탕으로 간호 연구와 교육, 그리고 실무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간호 연구에서는 향후 좀 더 다양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질적 연구가 수행되어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 현상에 대한 이론적인 기반을 쌓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질적 연구로 밝혀진 청소년 흡연과 관련된 상황적 맥락과 요인간의 영향력을 중재할 수 있는 효과적인 흡연예방과 금연 중재의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간호 교육에 있어서는 청소년이 흡연에 노출되고 습관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이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주지하고, 보다 다각적이고 역동적인 시각과 접근이 가능하도록 학생들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간호 실무에서는 각 중, 고등학교에서 흡연 예방과 금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 교사들이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단순한 금연 지식 전달의 교육을 넘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을 통합하여 개개인에게 효과적인 흡연 예방과 금연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편의 표출법에 의해 참여자를 선정한 질적 연구이므로 결과의 확대 해석과 일반적 적용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보다 다양한 계층과 지역의 청소년과 가족 구성원, 그리고 지역사회 인력자원을 연구에 포함시켜 반복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지역 중학교 교사 및 학생 38명을 여섯 개의 포커스 그룹으로 나누어 면담하여 청소년의 흡연 시도로부터 습관화에 이르는 과정을 탐구한 질적 연구이다. 교사 12명, 비흡연 학생 13명, 상습 흡연학생 13명이 포커스 그룹 면담에 참여하였으며 면담 내용은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근거이론방법론의 세 가지 분석 단계를 거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도출된 상황 특이적 근거이론은 "호기심으로 시작해 빨리 들어가면 해

어 나올 수 없는 수렁"이었고 흡연을 시도하게 되는 원인적 요인과 습관화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상황적, 맥락적 요인들이 세부 범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현재의 청소년의 습관적 흡연은 단순한 몇몇의 요인이 작용하는 현상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을 둘러싼 모든 환경 및 인간관계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수많은 흡연 예방과 금연 프로그램 및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흡연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청소년 흡연 현상을 조망한 관점이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기존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스트레스와 경쟁적 인간관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흡연 예방과 금연을 위한 중재는 단기간에 단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벗어나 좀 더 총체적인 관점에서 기획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 Abdullah, A. M., & Ho, W. W. (2006). What Chinese adolescents think about quitting smoking: A qualitative study. *Substance Use & Misuse, 41*, 1735-1743.
- Backinger, C. L., Fagan, P., Matthews, E., & Grana, R. (2003). Adolescent and young adult tobacco prevention and cessation: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Tobacco Control, 12*(Suppl IV), iv46-iv53.
- Chung, H. K. (2001). A phenomenological approach to high school student's smoking experienc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1*(4), 610-618.
- Falkin, G. P., Fryer, C. S., & Mahadeo, M. (2007). Smoking cessation and stress among teenager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7*(6), 812-823.
- Glaser, B. G. (1978). *Theoretical sensitivity*. Mill Valley: The Sociology Press.
- Glaser, B. G., & Strauss, A. L.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Chicago: Aldine Publishing Company.

- Guba, E. G., & Lincoln, Y. S. (1989).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Hamilton, G., O'Connell, M., & Cross, D. (2004). Adolescent smoking cessation: Development of a school nurse intervention. *The Journal of School Nursing, 20*(3), 169-174.
- Han, S. H. (2002). Effects of smoking prevention education on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smoking and the satisfaction of educat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Community Health Nursing, 13*(2), 230-238.
- Han, Y. R., Ha, E. H., Park, H. S., & Lee, B. E. (2005). Motivations of adolescents smoking cessation: Use of focus group interview.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2*(1), 55-71.
- Hwang, H. S., Chun, J. H., & Kim, W. J. (2004). Effects of a well-designed program for smoking prevention applicated on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1*(1), 171-182.
- Kam, S., Lee, K. H., Park, K. S., Kim, J. Y., Lee, Y. J., Kang, Y. S., et al. (2000). Smoking and alcohol abuse status and its related factors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Taegu cit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4*(2), 233-253.
- Kim, B. H., Cho, H., & Lee, K. S. (2001). A qualitative research on adolescents' smoking motives and situational contexts.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5*(2), 81-107.
- Kim, H., Kim, E., Choi, E. S., Kim, Y. J., Lee, H. J., Kim, J. J., et al. (2006). The determinants of adolescent smoking by gender and type of school in Korea.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39*(5), 379-388.
- Kim, I. H. (2003). The effect of smoking prevention program on changing the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smoking behavior of middle school boy's. *Journal of Korean Community Health Nursing, 14*(2), 242-252.
- Kim, S. Y., & Chung, Y. S. (2003). The effects of smoking prevention education o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0*(2), 81-94.
- Kim, S. Y. J., & Kwon, I. S. (2000). The effects on smoking cessation following the Internet exploration and video education among the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Nursing Query, 9*(1), 118-143.
- Korean Association of Smoking and Health. (2008). Tobacco use among teenagers. Retrieved October 11, 2008, from http://www.kash.or.kr/user_new/pds_view.asp
-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7). *The statistics of online survey on health status among teenagers*. Retrieved October 11, 2008, from www.cdc.go.kr.
- Lee, S. Y., & Lee, S. B. (2000). A study on health-risk behavior of adolescent smoking.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17*(2), 17-33.
- Park, I. H., Kang, H. Y., & Ryu, H. S. (2001). Effects of a smoking prevention program on smoking related knowledge, attitudes, self-esteem, and stress in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14*(1), 95-104.
- Park, N. H. (2005). Gender differences in the association between psychosocial factors and smoking, drinking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2*(4), 123-136.
- Park, S. W. (2007). National policy for adolescent smoking prevention and cessation. *The Forum of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7*, 22-34.

- Park, S. W., Lee, J. Y., & Park, J. H. (2004).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a smoking prevention program for Korea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1(1), 153-170.
- Staten, R. R., & Ridner, S. L. (2006). College students' perspective on smoking cessation: "If the message doesn't speak to me, I don't hear it".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28, 101-115.
- Swanson, J. M. (1986). Analyzing data for categories and description. In W. C. Chenitz & J. M. Swanson (Eds.), *From practice to grounded theory: Qualitative research in nursing* (pp. 121-132). Reading, MA: Addison-Wesley.

- Abstract -

The Processes of Habituating to Smoking among Teenagers

Yun, Soon-nyoung* · Yi, Yunjeong**
 Suh, Eunyong*** · Kim, Chunmi****
 Ko, Young***** · Jang, Mi-Gyeong*****
 Hyeon, Jeong-hee*****

Purpose: The smoking rates among teenagers in Korea grow gradually since 1980s despite of the numerous programs for youth smoking

prevention and cessation have been developed and implemen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nd describe the processes of habituating to smoking among teenagers using the grounded theory methodology. **Method:** Qualitative data was collected via six focus group interviews. A total of 38 people, twelve teachers and 24 middle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ll focus group interviews were tape-recorded, transcribed,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grounded theory methodology. **Results:** The overriding theme of the elicited grounded theory was "stepping into a quagmire by a merest chance". The student participants began smoking by a simple chance. The contingent factors to starting smoking were "discord within the family", "family member's smoking", "schoolwork stresses", or "a rebellious spirit". The conditions of smoking included accessibility, going around in group, and the lack of discipline. "Stigmatizing", "involved in mob violence", and "making a poor academic record" coexisted as the covariance of the smoking habituation.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llustrated the comprehensive and insightful picture of the phenomena under investigation. Nursing implications and further directions for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Teenagers, Smoking, Focus Group Interview, Cigarette

*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 Research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Yeojoo Institute of Technology
 ***** Graduate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